

통사론 교육과 창의성 개발*

Syntax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Creativity

안 성 호
(한양대학교)

The English Syntax course is widely offered by English-related departments in Korea. As with other college courses, a fundamental issue regarding this course will be how to teach it. This issue should be considered against Korea's current need for talented people with creativity. Its education sector is to explore how to produce such creative workforce. The revised 7th national curriculum aims at helping develop creativity in the secondary education.

This paper assumes that the most efficient way to achieve this goal will be to design every school subject in a way that they will help develop creativity. For this to be possible, English teachers-to-be must be trained with a curriculum which will help cultivate their creativity. This in turn implies that English Syntax must be taught with the same goal included.

This paper, first, shows that English Syntax is very feasible for creativity development. It then discusses how the course can be taught to foster the mental capacity. Finally, it reports results from the English Syntax course that the author taught in 2009 utilizing reflective essay writing and shows that there are signs that student creativity seems to have been spurred, with spacious rooms remaining for further improvement.

Keywords: 창의적 사고, 영어통사론, 과학적 창의성, 예술적 창의성

* 이 논문은 "영어통사론과 창의성의 교육"이란 제목으로 <2010 추계 한국생성문법학회-한국중원 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2010. 11. 6.,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한 것이다. 동 학술대회의 참가자들에게, 그리고 공식적인 논평을 해 주신 이병민 교수 (서울대)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그분들과의 격려와 논의를 통하여, 창의성의 영역전이성 문제 등을 더 심도 있게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논문의 정확성과 논지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 논평을 주신 *생성문법연구*의 논평가 3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 논문에 잔존할지 모르는 모든 오류와 잘못은 여전히 저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1. 도입

영어통사론 과목은, 영문법 과목과 별도로, 우리나라 대학의 많은 영어 관련 학과에서 개설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는, 통사론이 교사임용고사에서 영어학의 일부분으로 출제되고 있기도 하기에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중요한 과목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는, 학술적으로 많이 보고가 되지는 않았지만,¹ 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학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사고력 혹은 창의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우선, 창의성을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Torrance 1995: 75, 김영채 1999: 21에서 재인용). 지금은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탈추격형”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할 단계에 와 있는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창의성을 지닌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김왕동과 성지은 (2009)은, 일본과 핀란드 등의 예를 들면서 (가) 입학사정관제가 창의인재를 변별해 낼 수 있어야 하고, (나) 초등-대학 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다) 대학 및 교수 평가에서 창의적 교육역량 평가의 비중을 강화해야 하고, (라) 대학의 사회-기업 요구 부합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의성 계발이 필요한 세번째 이유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창의성이 21세기 경제 활동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지식포럼 (2009. 10. 13-15. 서울)에 참석한 개리 하멜 (런던 비즈니스스쿨)은 세계 경제가 “지식 기반 경제”에서 “창의성 기반 경제” (creativity-based economy)로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시사저널 www.sisapress.com, 2009. 10. 28.).

이러한 창의성 계발의 다양한 필요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교육적 과제는 어떻게 창의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이다. 사실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대토론회: 중고등학교 창의적 과학교육과 대학입시’ (2010. 6. 23.)를 개최하여, 창의적 중등교육과 대학입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창의력 계발을 돕기 위하여, 김왕동과 성지은 (2009)이 제안하듯이, “창의적 사고 기법” 등의 과목을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대학에서 제공되는 각 과목들이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보

¹ 윤종렬 (사적 논의, 2011. 5. 20)에 따르면, 한국언어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이론이나 자료냐” 등의 주제를 걸고 언어학 교육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논문 등으로 보고되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대학의 영어통사론 과목의 내용구성과 관련한 작은 시도로는 안성호 (2002)를 보라. 반면 영어교육 분야에서 영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Thornbury (1999)나 양현권 (2003), 양현권과 정영국 (2008)과 거기에서 언급된 연구들을 보라.

탐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그리고, 제7차 국가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www.kice.re.kr)을 길러내기 위하여서는 영어를 포함한 모든 중등 과목에서도 창의성 신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이 있는 영어교사가 배출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교과과정도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구안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명제들이 함의하는 바는, 영어통사론 과목도 수강생의 창의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영채 (1999: 387)가 말하는 창의적 사고력 수업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사고의 수업을 내용 수업에 더 많이 통합시킬수록 학생들은 자기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더 많이 사고할 것이며, 또한 사고하는 기능과 전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모든 수업이 해당 내용의 습득 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 신장도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연구자는 이것을 ‘내용 학습과 창의력 신장에서 소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창의성의 개념, 구성요소, 창의적 사고력 수업 방법 등을 살펴보고 영어통사론이 기본적으로 창의성 개발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영어통사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성찰 저널을 이용한 저자의 2009년 영어통사론 과목운영을 한 사례로 삼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를 창의성 신장 문제와 관련하여 평가하며 논의한다.

2. 창의성과 교육

2.1. 창의성과 그 구성요소

사고과정으로서의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 행동이나 정신 과정”으로 이해되는데 (김영채 1999, 김영정 2002), 좁은 의미로는 Guilford (1956)의 발산적 사고능력을 말한다. 이는 유창성 (fluency: 생성해 낸 아이디어의 수), 융통성 (flexibility: 아이디어들이 속한 범주의 수, 즉 다양성), 독창성 (originality: 아이디어들의 새로움,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함), 그리고 정교성 (elaborativeness: 아이디어를 상세하게 잘 발달시킴)이 높은 어떤 것을 생산해 내는 행동이나 정신과정이다. 여기에, Guilford는 결점과 문제에 대한 민감성 (sensitivity: 괴리나 결손을 관찰함에 있어서의 민감성), 재정의하기 (redefinition: 기존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찰하고 지각하기)의 준거를 첨가하는데, 김영정은 이를 광의의 창의성이라 한다.

이와는 별도로, Nickerson (1987)은 본질적으로 비판적 사고가 창의적이며, 창의적 사고에는 비판적으로 평정하고 향상시키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김영채 (1999: 147)는 창의적 사고가 (분석력과 평가력을 포함하는) 논리력과 협의의 창의력인 종합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김영채가 말하는 그 종합력도, 김영정 (2002)은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에 속함을 지적한다. 즉, 가설이나 이론을 만드는 가설연역추리, 귀추법 (abduction)², 또는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리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라는 논리력과, 귀납 일반화와 통계적 일반화 등 기본적으로 귀납적 추리력이라는 것이다.

이들을 종합하여, 김영정 (2005a,b)는 인간의 고등사고 능력을 다음 7가지로 규정한다.

(1) 고등사고 능력

- a. **기호적 사고 (Formal Symbolic Thinking):** 형식 논리학이나 기호 논리학에 기반한 업적과 관련됨. 수렴적 사고의 최고봉임. (예)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수학의 원리, 알란 튜링의 튜링 기계 (Turing Machine) 등.
- b. **분석적 사고 (Analytic Thinking):** 이해력, 분석력을 포괄함.
 - 이해력: 의미파악 능력, 번역 능력, 해석 능력, 외삽 (extrapolation)/내삽 (intrapolation) 능력.
 - 분석력: 자료를 구성성분으로 분해하고, 그 구성성분들 간의 관계와 그것들이 조직되어 있는 방식을 발견하는 능력.
- c. **추론적 사고 (Inferential Thinking):** 연역추론 능력과 귀납추론 능력으로 구성.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주어진 자료로부터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 d. **종합적 사고 (Synthetic Thinking):** 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전체/하나가 되도록 묶는 능력이나, 다양한 매개변항 (parameter)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 단편적인 사실들/관찰들에 근거하여 가설/이론에 이르는 귀추적 능력. Torrance (1995)의 문제에 대한 민감성 (sensitivity)이 이 사고에 요구됨.
- e. **대안적 사고 (Alternative Thinking):** 주어진 사태에 대하여 발상전환적 접근을 하거나, 시야의 지평을 확대하여 문제에 접근하거나, 보다 나은 대안을 창출해낼 줄 아는 능력. Torrance의 재정의 (redefining)를 말한다. 종합적 사고와 함께 변증적 사고로 불리기도 함.
- f. **발산적 사고 (Divergent Thinking):** Guilford (1956)가 통찰한 바와 같이, 유창성 (fluency: 생성해 낸 아이디어의 수), 융통성 (flexibility: 아이

²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귀추법 (abduction)은 관찰들로부터 설명적 가설 (explanatory hypothesis)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디어들이 속한 범주의 수, 즉 다양성), 독창성 (originality: 아이디어들의 새로움,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함), 그리고 정교성 (elaborativeness: 아이디어를 상세하게 잘 발달시킴)의 기준으로 이해됨.

g. 상징적 사고 (Material Symbolic Thinking): 상징적 상상력을 통하여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서 사용됨. 발산적 사고의 최고봉.

그리고 그는 다음 표에서 이 7가지 고등사고 능력을 그간 나왔던 논리적-창의적 사고의 종류와 관련하여 제시한다.

표 1 고등사고능력의 7범주 (김영정 2005a: 109)

| 비판-창의적 (critico-creative) 사고 (느슨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 느슨한 의미의 창의적 사고) | | | | | | |
|--|-------------------------------|--------------------------------|--------------------------------------|--|------------------------------|--------------------------------------|
| <= 수리성 방향 | 비판적 사고 | | | | | => 예술성 방향 |
| Formal Symbolic Thinking 기호적 사고 | Analytical Thinking 분석적 사고 | Inferential Thinking 추론적 사고 | Synthetical Thinking 종합적 사고 | Alternative Thinking 대안적 사고 | Divergent Thinking 발산적 사고 | Material Symbolic Thinking 상징적 사고 |
| | 개념적 분석 텍스트 분석 | 분석적 추론: 연역 종합적 추론: 귀납 | 귀추 논리 퍼즐 의사 결정 상황 추리 민감성 | 관점/발상 전환 대안 창안 시야/시계 확장 시각/지평 전환 |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 |
| 논리적 사고 | | | | 창의적 사고 | | |
| 광의의 논리적 사고 (수렴적 사고) | | | | | 협의의 창의적 사고 | |
| 협의의 논리적 사고 | | | 광의의 창의적 사고 | | | |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2005b)는 광의의 논리적 사고가 수렴적 즉 과학적 창의성의 기반이 되고, 협의의 창의적 사고가 발산적 즉 예술적 창의성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의의 논리적 사고는 기호적, 분석적 그리고 추론적 사고를 말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될 때에는 종합적, 대안적 사고도 포함한다. 반대로 협의의 창의적 사고는 발산적, 상징적 사고를 말

하지만, 광의로 사용될 때에는, 종합적, 대안적 사고를 포함한다. 즉 그 두 종류의 사고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성욱 (2005)은 “위대한 과학자일수록 직관, 시각화, 상상력, 감성, 즐거움, 이해 (understanding), ‘자연과의 하나됨’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고와 실행을 구성하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22쪽)라고 하면서 과학적 사고와 활동에 예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김영정 (2005b)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렴성과 발산성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서로 배타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김영채 (1999: 454)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결론에 대하여 또는 지식 상의 괴리에 대하여 그것을 자각하고 민감해지며, 가설을 형성하고 해결을 찾기 위하여 실험을 하며, 가설을 수정하고 고치며 그리고 얻은 결과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³ 이는 언어학에서 그리고 통사론 연구에서 학자들이 늘상 하는 일이 아닌가? 통사론연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창의적 사고를 동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와 유사한 활동을 하도록 가르치면 그들의 창의성을 더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웅 (사적 논의, 오래 전)과 윤종렬 (사적 논의, 2011. 5. 20.)은 문법적인 혹은 비문법 영어 문장의 모둠을 자료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통사 규칙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통사론 교육방법임을 피력한 바 있다.

2.2. 창의성 교육

김영정 (2005b)은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다음과 같이 대조하여 설명한다. 전자가 논리적이거나 후자는 비논리적이거나 상상적이고, 전자가 가능한 가장 훌륭한 접근을 하려고 하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들만 고려한다면 후자는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창안하려고 한다. 전자가 합리적, 순차적으로 대안을 찾아나간다면 후자는 우연성이나 비약의 개입을 허용한다. 전자가 의식적, 논리적 질서를 강조한다면 후자는 무의식적, 비약적 무질서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사고에서 어떻게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김영정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선, 수렴적 사고를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더라도 그 깊이와 폭에서 상이할 수 있다 [심

³ 이병민 (학회 토론, 2010. 11. 6.)은 김영채의 이 (과학적 창의성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으로 모든 학문과 교육과정에서 길러지고 발현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 과정의 교육에서는 합당한 것일 수 있겠지만, 학부 교육과정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다. 본고는 모든 교육과정이 창의성 배양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창의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교육과정의 수준에 상관없이, 그 교육이 지식습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교육은 전자에 해당되겠지만, 학문과정의 결과로서의 지식의 전달에 집중한다면 후자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층성]. 둘째, 새로운 문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이며 심도 있는 비판적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다각성], 특정 아이디어가 새로운 영역에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영역전이성]. 반대로, 발산적 사고를 함에 있어서는 기존 형식이나 고정된 제약으로부터 이탈하고, 혁신적 성격의 질적 비약을 함으로써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

| 종류 | 수렴적 사고 | 발산적 사고 |
|-----------|--|---------------------------------------|
| 논리성 | 논리적 사고 | 비논리적 상상적 사고 |
| 유용성 | 가능한 가장 훌륭한 접근 추구, 합리적인 대안들만 고려 |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창안 |
| 절차성 | 합리성의 틀 안에서 논리적인 절차를 따라 순차적으로 밟아 대안을 찾음 | 우연성이나 비약 개입 허용 |
| 강조점 | 의식적, 논리적, 질서 강조 | 무의식적, 비약적, 무질서 강조 |
| 창의성 발현 근거 | 심층성, 다각성, 영역 전이적 통찰력 | 기존 형식이나 고정된 제약으로부터의 이탈, 혁신적 성격의 질적 비약 |

그는 학습이 3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우선, 1단계는 암기를 통한 학습 단계이고, 2단계는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 단계이며, 3단계는 “반성적 체화”를 통하여 영역 전이적 통찰력을 키우는 학습 단계이다. 여기에서, 반성적 체화란 사고력을 증진시키려는 자각적 목표를 가지고, 좋은 사고의 유형이나 기준을 토대로 하여, 메타인지 영역에서 (즉 반성적 사고 속에서) 다양한 유사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다양한 유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고등사고능력을 개발하여 익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성적 사고는 무엇인가? 김영정 (2005b)에 따르면, 우선, “무슨 사고를 하는지, 그 사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함축이 무엇인지, 전제가 무엇인지, 관점이 무엇인지, 맥락이 무엇인지 등등을 반추하며 자각적으로 사고하는 것” (131쪽)이다. 획득한 지식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고차적 사고 기법으로, 이 반성적 사고로 얻은 지식은 높은 활성값을 지니고 있어 필요시 곧, 상황에 맞도록 변형, 결합, 분석, 종합하여 활용하기에 용이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는 영역 전이적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영역 전이적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핵심 작업이라는 것이다.

좀 더 단순하게, 김영채 (1999: 147)는 분석적 사고능력과 평가 능력을 포함한 논리적 사고능력과 종합적 사고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 (2) a. 분석력 개발: 교과학습에서는 내용을 요소나 부분들로 분석해 보고, 특징들을 찾아보고, 몇 가지 행동이나 현상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반적인 형태(pattern)가 있는지를 알아보거나 또는 인과관계를 찾아 보게 한다.
- b. 평가력 개발: 아이디어나 작품을 정확성, 가치, 또는 유용성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한다.
- c. 종합력 개발: 부분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고, 가설이나 이론을 만들고, 일반화해 보고, 디자인을 설계해 보도록 한다.

즉, 이러한 사고력을 사용해야 하는 학습 상황을 제공하여 주고, 그 상황에서 그 사고력을 사용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이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Kolb (1984)의 경험기반 학습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를 김영정의 7가지 고등사고능력의 개발로 확대하여 적용하면, 이 7가지 고등사고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러한 학습 과제를 부여하면서 창의적 사고를 할 기회를 제공해 주면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성찰 에세이의 유용성, Kolb (1984)의 경험기반 학습이론, 그리고 Torrance (1970)의 “부화식 수업”에 관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2.3. 성찰 에세이

McKeachie (1999)는 학생 저널이 교실 밖에서 교과 내용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자극함으로써 학습과 사고, 동기를 향상시켜 준다고 주장한다 (Beach & Bridwell 1984, Hettich 1990 참고). 그는 자신의 심리학 수업에서 읽기 과제를 부여하면서, “저널이나 일지는 여러분이 읽고 경험했던 것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다른 수업자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읽기 자료를 단순히 요약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반응, 질문, 논평, 비판, 통찰, 즐거웠는지 여부 등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번역본 117쪽)고 요구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성찰 에세이는 김영정이 말하는 반성적 사고를 촉진한다고 하겠다.

2.4. 경험기반 학습 이론과 창의적 문제해결

Kolb (1984)는 Dewey 등의 전통에 기반하여 학습이 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였고 특히 그 학습 과정을 다음 4 단계의 사이클로 이해하였다 (Kang 2008 참조). 어느 차원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선, 학습자는 학습 대상에 대하여 경험 (experience)한다. 다음에, 그 학습 경험에 대한 성찰

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파지하고 기술 (description)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이론/해결책 (solution)을 모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결책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 이는 사실상 김영채 (1999: 11장)가 말하는 다음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과도 일맥상통해 보인다.

(3)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 a. 1단계: 문제, 결손, 괴리, 모순 등을 민감하게 지각함 [“호기심, 긴장”]; 불완전, 부족, 혹은 불균형한 측면에 대한 불만을 가진다.
- b. 2단계: 현재 가용한 정보들을 가공하여 다양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키거나, 문제를 재정의한다. 확인된 결손 요소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 가설 (해결대안)을 생성하고, 그 가설을 (반복적으로) 검증하여 보충한 후 결과를 소통한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험기반 학습을 “연습”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창의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창의적 사고력 수업: 부화식 수업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이란 결국 학생들이 위와 같은 창의적 문제해결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능할 것임을 알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Torrance (1970)는 창의적 사고력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정보/자료의 불완전성과 개방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라, 학생들이 호기심 (흥미, 동기)를 지니게 되고 창의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탐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김영채는 (1999)는 사실 모든 정보가 불완전하다고 설파한다. 그렇다면, 어느 과목이나 이 조건은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고, 이에 영어통사론도 예외일 수 없겠다. 단지, 학생들에게 현재 주어진 정보를 넘어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고 상상해 보는 태도/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Torrance는 둘째로 창의적 활동에는 학습자가 무언가 산출물을 생성해 내고 (예: 그림, 음악, 이미지, 이야기, 작문, 조각, 설계, 발표, ...), 그것을 사용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면 좋다는 것이다. 영어통사론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주어진 혹은 스스로 찾아낸 자료를 설명할 가설/조건/규칙 등을 설정하고 그를 이용하여 추가 자료를 검증하게 할 수 있겠다. 셋째, 창의적 사고력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질문을 잘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한 학생의 호기심/탐구심은 그가 하는 질문의 종류에 나타난다. 따라서, 학생에게 질문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그에 대한 해답을 계속하여 탐구할 수 있게 응답하고 또 그에 필요한 기능을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수업 방안으로, Torrance (1997)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되는 부화식 수업 모형 (the incubation model of teaching)을 제안한다.

- (4) a. 1 단계: *예상해 보기 (Warming-up)*--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도록, 호기심 자극, 상상력 촉발, 수업/활동의 “이유”를 떠올리게 한다.
- b. 2 단계: *깊이 이해하기*--표면적인 것을 넘어 핵심을 찾아보게 하며, 주어진 정보들을 연결시키고, 문제점을 찾아본다. 한 번 보고 쉽게 판단하기 않도록 한다. 새로운 정보와 통찰을 찾아보는 열린 마음을 가지며, 상상과 느낌을 통하여 내용을 정말로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 c. 3단계: *현재의 내용을 넘어서기*--학습내용과 연관된 활동을 해 보게 한다.

환언하자면, 부화식 수업은 우선 호기심과 탐구심을 갖도록 학생들을 자극하여 깊게 현상과 문제를 탐구하게 하고 알게 된 그 결과를 응용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창의성을 계발하는 한 방법은 경험기반 학습 이론에 따라 본인의 학습 과정을 성찰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며 그 과정을 성찰 에세이로 규칙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그 해결책을 존중하여 토론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영어통사론에서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선 3.1절에서는 영어통사론 과목이 창의적 사고능력 계발에 적합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실제적인 교육 사례를 통하여 그러한 실현가능성의 일 단면을 보이도록 하겠다.

3. 영어통사론에서의 창의성 개발

3.1. 적합성

영어통사론을 가르치는 것이 창의적 사고능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인가? 2.1절에서, 우리는 김영채 (1999: 454)가 정의하는 창의적 사고는 (다른 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사론 연구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았다. 문제/결론/괴리를 자각하고, 가설을 형성하며, 실험 등을 통하여 그 가설을 검증하고, 수정하거나 기각하며, 얻은 결과를 서로 교류하는 것이다. 이는,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영어통사론이 창의적 사고 능력의 배양에 아주 적합한 과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⁴

좀 더 구체적으로, 김영정 (2002, 2005a,b)이 규정한 과학적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 기반이 되는 기호적, 분석적, 추론적, 종합적, 대안적 사고를 하도록 “강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어통사론 수업에서 가능할 지를 살펴보자. 첫째, 고도의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영어통사론에서 추구하는 형식화 (formalization)는 **기호적 사고**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범주 기호, 구구조규칙이나 엑스바 이론의 진술, 그리고, 수형도 분석 등에서 형식적 기호를 사용하면서 기호적 사고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둘째, 기술영문법 교육과 달리, 영어통사론 교육은 다양한 **분석적 사고** 능력을 요구한다. 일반적인 이론 과목과 같이 개념적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이해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료를 구성성분으로 분해하고, 그 구성성분들 간의 관계와 그것들이 조직되는 방식을 발견하는 분석력은 사실상 통사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고능력이다. 구구조규칙, 엑스바이론, 이동 규칙 등을 통하여 영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기 때문이다. 셋째, 영어통사론은 **추론적 사고**를 많이 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이론이나 가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주어진 자료로부터 경험적 일반화, 혹은 그에 근거하여 가설이나 이론을 도출해내도록 강요한다. 예를 들어, WH-이동 가설을 도출할 때 많은 경험적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기반하여 가설 설정을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연역적 추론도 많이 포함한다. 이론에 근거한 예측을 하고 검증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엑스바 이론을 가르친 후, 그 예측하는 바를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서 올바른지 검증하지 않는가?

넷째, 영어통사론 교육에서는 **종합적 사고**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하나로 묶는 능력은 여러 범주 핵의 보충소와 관련한 어순들에 기반하여 엑스바 이론을 귀추할 때에나, 여러 조건을 하위 인접조건 (Subjacency)으로 종합하거나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고 능력이다.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을 대조하면서 상이한 매개변향적 사실을 하나의 원리로 연결시킬 때에도 역시 이러한 종합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통사론은 **대안적 사고**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중등교육에서 학습한 문법 체계를 허물고 새로운 문법체계를 수립해 나가려면, 개념과 규칙, 원리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영어를 바라보도록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의 개인 경험에서 보면, 학생들이 시제가 없는 “절”과 한 단어로 이루어진 “구”의 개념을 여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목도하곤 한다. 그리고 there-구문에서 여간해서는 there를 주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

4 이병민 (학회 토론, 2010. 11. 6)은 창의적 사고가 학문영역을 가로질러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창의적인 철학자가 바로 창의적인 경제학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창의성의 전이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하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해당 분야에서 이미 밝혀진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고, 둘째, 그에 기반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전자인 스키마의 습득에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후자인 창의적인 사고 능력 자체는 쉽게 영역을 넘어 전이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생들을 많이 보았다. 이렇게 재정의 (redefining) 하기를 어려워하는데, 통사론은 그러한 전망/정의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영어통사론은 창의력 신장에 “매우” 적합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단순한 논리 능력의 연습이 아니라, 경험적인 영어 자료가 있고 그에 근거하여 원어민이 지닌 문법 능력의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이므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절한 **수렴적 사고** 혹은 **과학적 창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영어통사론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가르치는 것일까? 이 과목을 어떻게 구성하면, 학생들의 창의성을 더 잘 촉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진행 중인 사례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한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3.2. 영어통사론 교육의 사례 연구: H 대학 사범대 영어교육과의 <영어통사론>

3.2.1. 일반적 사항

- 영어로 진행되는 3학년 1학기 과목.
- 일반적인 강의 중심 강좌로서,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며 통사이론화 단계를 밟아감.
- 교과서: Aarts, Bas. 2008.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2nd ed. New York: Palgrave. (1주당 1장, 15장 Case Studies 제외).
- 대부분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 진행하나, IP, CP 구조 도입하고 격 이론을 추가함.
- 학생들의 언어학적 배경 지식, 영어구사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소개서를 쓰게 함: (자기소개, 영어훈련 배경, 언어학적 배경, 통사론에서 알고 있는 점과 알고 싶은 점).
- 숙제 1: 10회 이상 성찰 에세이 (reflection essay)를 쓰게 함 (성적 10%).
- 숙제 2: 기말 보고서 (성적 10%): 성찰 저널을 확대한 형태로 5-7쪽 [“스컵”을 염두에 둠].
- 시험: 중간/기말고사 (논술형):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 1개 이상 출제; 퀴즈 2회 (개념 이해 점검 중심).

3.2.2. 2009년 수강생: 7명 (8명중 1명 중도 탈락)

- 학생 갑: 4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영어학특강>을 이미 수강한 교육학과 4학년 학생으로 중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 7개월 어학연수를 하였고 영어교사를 희망하였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통사론은 자습이 불가능하여 수강한다고 하였다. “one of the top hardest

- classes ... one of the most rewarding ...”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 학생 을: 27세였는데, 영어교사를 희망하여 영어를 부전공하였다. 14세에 싫어하는 영어교사를 만나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 시험 준비 수준으로만 영어를 공부하였고, 언어학 배경은 없었다.
 - 학생 병: 타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 후 2001년에 졸업하였으나 중소기업에서 2년간 일한 후,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고 학원 등에서 중학생을 가르쳐왔다 (약 29세). 교육학과로 편입학하였고, 영어학 배경은 없었고, 영어와 영어통사론 지식을 함께 습득하기 원하였다.
 - 학생 정: 영어교육과 4학년 학생 (약 23세)으로 어학연수를 1년간 다녀왔다. 영어학 개론을 이미 수강했고, 최근에는 영문법 강좌를 온라인으로 수강했다. 통사론이 무척 광범위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다.
 - 학생 무: 영어교육과 3학년 복학생 (24세)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외국인 영어강사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영어학개론에서 통사론을 조금 공부하였다.
 - 학생 기: 영어교육과에 편입해 온 학생 (27세)으로 공공행정/경제를 전공하였다. 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읽기를 많이 했다. 언어학이나 통사론에 대한 배경은 전무했다.
 - 학생 경: 영어교육과 3학년 편입생 (약 29세)으로, 편입 전에 건축공학을 전공하였다. 회사 생활을 조금 한 후, 학원 강사로 몇 년간 일하다가 영어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해외 어학연수 경험이 있고, 영어학이나 통사론 지식은 전무했다. 매우 분석적인 학생으로, 강사로 일하면서 영어 문장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가르치려 하였으나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고 싶어 했다.

요약하면, 수강생 7명 중 3명은 영어교육을 주전공으로 하지 않았고, 나머지 4명 중 2명은 편입생 (1명 타대 공공행정/경제 전공, 1명 타대 건축공학 전공)이었다.

3.2.3. 특기 사항

3.2.3.1. 성찰 에세이 쓰기

학생들은 한 주일의 수업을 듣고 그에 대한 1-2쪽의 성찰 에세이를 최소한 10개를 써야했다. 수업과 관련하여 어느 것에 대하여나 주제로 에세이를 쓸 수 있게 하였는데, 표준적으로는 경험기반 학습에 대하여 소개해 주었다. 학습이 경험 (experience: 수업, 교과서), 문제 (problem)의 포착/기술, 해결책 (solution) 탐색, 그리고 적용 (application)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스스로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성찰해 보고 그 결과를 에세이로

쓰라고 하였다.

3.2.3.2. 학생 질문 내용에 대한 공개 토론

월요일과 수요일에 각각 1시간씩 가르쳤는데, 월요일에는 주말까지 보내온 성찰 에세이에서 제기된 질문이나 논점을 모아서 먼저 그에 대하여 답하거나 논의를 하였다. 처음에는 질문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34주가 지나면서는 질문자 이름을 밝혔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나온 좋은 질문이나 논의 및 제안 등에 대하여 그 학생의 것으로 이름 붙여 주며 명시적으로 칭찬도 하였고, 학생들에게 좀 더 탐구적인 자세를 갖도록 격려했다.

4. 수업 평가 및 결과 분석

4.1. 수업에 대한 개괄적 평가

이 수업은 1995년 이후 계속 가르쳐온 <영어통사론> 과목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자의 실제적 지식의 결과이다. 학생들에게 성찰 에세이를 쓰게 함으로써 한편으로 영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쓰기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데, 쓰기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는지는 즉각적으로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은 에세이를 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 하였지만 월요일 토론 시간은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어떤 학생들은 여전히 토론이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 먹는다”고 달가와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Torrance (1970)의 부화식 수업 모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수업 자체가 창의적 사고력을 촉발하는 부화식 수업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거나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가 보여주는 구문적, 구조적 속성(들)을 “관찰”로서 진술하고, 그 관찰들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형성하면서 검증하며 이론화하여 갔다. 그래서 이 수업은 제시된 논지를 공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창의적 사고력의 일부가 되는 비판적-논리적 사고력의 배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를 넘어 창의적 사고력 배양까지를 명시적인 목표로 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성찰 에세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시된 이론 혹은 자신의 이해에서의 문제/약점/괴리 등을 스스로 발견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학생들은 반성적 사고를 할 기회를 가졌고 창의적 사고를 하도록 다소간 강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나 제안한 가설들을 논의할 때,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하여, 또 창의적 사고와 관련하여 상호 간에 자극을 받았다고 사료된다.

여기에서는, 우선,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들을 유형화하고 한 학기 수업을

통하여 질문들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4.2. 질문 내용별 유형

Torrance (1970, 1995)와 김영채 (1999)가 강조하듯이, 질문은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를 보여준다. 성찰 에세이에서 학생들이 제기하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그 질문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통사론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유형 A]. 왜 배우는가? 어디에 유용한가? 통사론에는 정답이 없고, 관점에 따라 뭐든지 답이 될 수 있는가? 등등이다. 둘째, 소위 내용확인 질문 (clarification questions)이 있었다. 개념, 가설, 이론, 자료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유형 B]. 이 경우에는 그냥 묻기도 하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적고 그것이 올바른지를 묻기도 하였다. 셋째,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 가설, 이론의 타당성이나 제시된 자료의 진정성 (authenticity), 그리고 새로운 자료에 대한 설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유형 C]. 이 유형에서는 (새로운 자료와 관련하여) 가설을 점검하고 수용 내지 기각하기도 하였고, 스스로 새로운 대안가설을 제안하고 그를 논증하려고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과학적 창의성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 특히 영어문법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추구하는 질문이 있었다 [유형 D].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질문 유형

- a. 유형 A: 통사론 학문의 성격이나 유용성
- b. 유형 B: 수업, 교과서에서 제시된 자료나 가설에 대한 설명 요구 혹은 본인의 이해에 대한 정오 여부 확인
- c. 유형 C: 수업, 교과서에서 제시된 자료나 가설의 타당성 의문/점검; 새로운 자료에 대한 설명, 적용 가능성
- d. 유형 D: 영어/문법 교육과 관련한 교육적 시사점

이 질문 자료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중도포기한 학생 자료는 배제하였다. 그리고 중간에 1주를 쉬면서 성찰 에세이 10을 쓰지 않고, 그후 성찰 에세이 11과 12를 제출한 학생 경의 경우에는 에세이 11과 12를 각각 10과 11로 취급하여 분석하였다.

그렇게 볼 때, 모든 학생이 최소한 11개의 에세이를 제출하였다. 에세이 12는, 4명의 학생만이 제출하여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들의 개인적 태도가 많이 다를 수 있다. 학생 갑은 강의가 시작된 후부터 그 학기의 약 2/3 기간 동안에 A 유형의 질문 3개 (3회), D 유형 1개 (1회)를 제기하였다. 통사론적 연구/학습 방법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후반으로 가면서, 확인을 위한 B 유형

1개 (1회), 그리고 가설 점검적인 C 유형의 질문 7개 (5회)를 제기한다. 을은 B 유형의 질문 14개를 7회에 걸쳐 제기하고 C 유형의 질문 9개를 역시 7회에 걸쳐 제기하였는데, 뚜렷하지는 않지만 B 유형은 앞쪽에, C 유형은 뒤쪽에 분포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 병은 주로 B 유형의 질문을 제기하였다: B 유형 21개 (10회), C 유형 1개 (1회). 학생 정은 B 유형 질문 9개 (4회)를, C 유형 질문 8개 (6회)를 제기하였는데, 전자는 주로 전반기에 후자는 주로 후반기에 분포하였다. 학생 무는 매우 특이하였다. B 유형 질문 2개 (2회), D 유형 질문 3개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C 유형 질문을 제기하였다 (12개, 8회). 학생 기는 A 유형 질문 3개 (3회), B 유형 질문 21개 (7회), 그리고 C 유형 질문 12개 (6회)를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 경은 학생 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B형 질문 5개 (4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C 유형 질문을 하였다 (20개, 10회).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유형별 질문수와 질문회수

| 학생 | A | | B | | C | | D | |
|----|-----|----|-----|----|-----|----|-----|----|
| | 질문수 | 회수 | 질문수 | 회수 | 질문수 | 회수 | 질문수 | 회수 |
| 갑 | 3 | 3 | 1 | 1 | 7 | 5 | 1 | 1 |
| 을 | 0 | 0 | 14 | 7 | 9 | 7 | 0 | 0 |
| 병 | 0 | 0 | 21 | 10 | 1 | 1 | 0 | 0 |
| 정 | 0 | 0 | 9 | 4 | 8 | 6 | 0 | 0 |
| 무 | 0 | 0 | 2 | 2 | 12 | 8 | 3 | 1 |
| 기 | 3 | 3 | 21 | 7 | 12 | 6 | 0 | 0 |
| 경 | 0 | 0 | 5 | 4 | 20 | 10 | 0 | 0 |

이를 살펴보면, 학생 별로 상이한 경향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병은 주로 B 유형 질문을 하고, 학생 을, 정, 기는 B와 C의 양 유형을 비교적 고르게 질문하였다.⁵ 학생 갑의 질문 수가 작기는 하였지만, 학생 갑, 무, 경은 주로 C 유형 질문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별로 B와 C 유형의 질문수와 질문회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그 양자를 평균한 다음 결과를 보면 더 확연히 알 수가 있다.

⁵ 사실 학생 기는 B 유형 질문이 C 유형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으나 후자도 많기 때문에 두 유형의 질문을 골고루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표 4 개인별, B/C 유형별 질문수와 회수 (%)

| | B 질문수 | B 질문회수 | B 평균 | C 질문수 | C 질문회수 | C 평균 |
|---|-------|--------|------|-------|--------|------|
| 갑 | 12.5 | 16.7 | 14.6 | 87.5 | 83.3 | 85.4 |
| 을 | 60.9 | 50.0 | 55.4 | 39.1 | 50.0 | 44.6 |
| 병 | 95.5 | 90.9 | 93.2 | 4.5 | 9.1 | 6.8 |
| 정 | 52.9 | 40.0 | 46.5 | 47.1 | 60.0 | 53.5 |
| 무 | 14.3 | 20.0 | 17.1 | 85.7 | 80.0 | 82.9 |
| 기 | 63.6 | 53.8 | 58.7 | 36.4 | 46.2 | 41.3 |
| 경 | 20.0 | 28.6 | 24.3 | 80.0 | 71.4 | 75.7 |

질문수와 질문회수의 백분율을 평균하였을 때, 병은 B 유형이 93.2%, 학생 을-정-기는 B나 C가 모두 40-60%에 속하며, 학생 갑-무-경은 C 유형이 모두 70% 이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사고 방식이나 태도가 상이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김영채 (1999)는 창의적 학습의 필요 요건으로 창의적 환경과 창의적 사고 기능과 전략과 아울러 창의적 태도와 성격을 들고 있는데, C 유형 질문을 70% 이상 한 세 학생은 그러한 태도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특히 학생 무와 경은 11개의 성찰 에세이 중 각각 8회와 10회에 걸쳐 C 유형 질문을 하였는데, 거의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창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⁶ 반면 학생 갑은 그러한 질문 경향이 후반에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창의적 태도가 다소간 계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수업을 통하여서 그러한 태도가 잘 계발되지 않는 학생 병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다면 을-정-기 세 학생은 어떤가? 이들도 일반적으로 후반기로 갈수록 C 유형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사실상, 학생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C 유형의 질문을 더 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별 특별한 질문이 없었던 1차 성찰 에세이를 제외하고 에세이 2-11 사이의 유형별 질문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⁶ 한 논평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학생들은 선천적으로, 아니면 적어도 선행의 지적 훈련을 통하여, 이미 높은 비판적/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들로 볼 수 있겠다.

표 5 B/C 유형별 질문수 및 질문회수의 합

| 종류 | 유형 | 성찰 에세이 회차 | | | | | | | | | | 합 | |
|-----|----|-----------|---|---|---|---|---|---|----|----|----|----|----|
|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전반 | 후반 |
| 질문수 | B | 10 | 8 | 8 | 7 | 5 | 5 | 8 | 3 | 9 | 7 | 38 | 32 |
| | C | 1 | 7 | 5 | 6 | 9 | 8 | 7 | 11 | 9 | 6 | 28 | 41 |
| 회수 | B | 5 | 4 | 4 | 4 | 2 | 3 | 3 | 3 | 3 | 3 | 19 | 15 |
| | C | 1 | 6 | 3 | 4 | 4 | 4 | 5 | 6 | 5 | 5 | 18 | 25 |

유형별 질문수를 보면, B 유형은 후반기에 다소 (-16%) 줄어들었으나 별 차이가 없는 반면 C 유형은 28개에서 41개로 크게 (46%) 증가하였다. 질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를 보여주는 질문회수에서도 역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B 유형은 후반기에 다소 (-21%) 줄었으나, C 유형은 전반기에 비하여 후반기에 18회에서 25회로 상당히 (39%) 증가하였다.⁷ 이는 위 수업의 결과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창의적 사고를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⁸ 이 경향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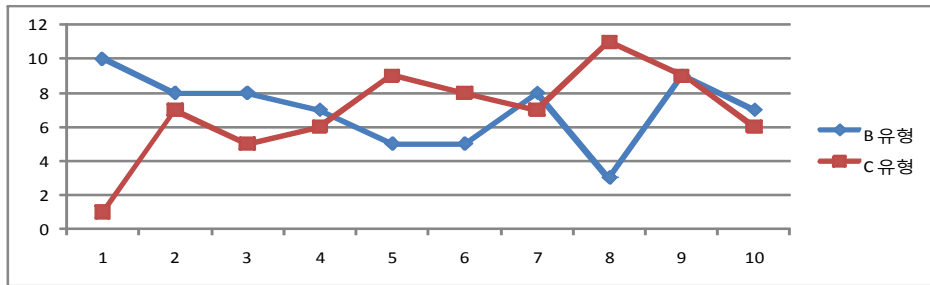


그림 1 유형 별 질문 수의 변화

이 그래프는, 질문 수에서 B 유형이 하강이나 보합세를 유지한 반면, C 유형은 상승세를 이루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 그림 2는 유형 별 질문 회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⁷ 한 논평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엄밀한 논증을 위해서는 추론적 통계 처리가 필요하겠지만, 참여자 수가 제한되고 파일럿 연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여기에서는 기술적 통계에 근거하여 논의한다.

⁸ 한 논평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9회, 10회의 경우에는 질문의 수가 전반적으로 줄었고 이는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혹은 학기말이라는 시기가 미치는 영향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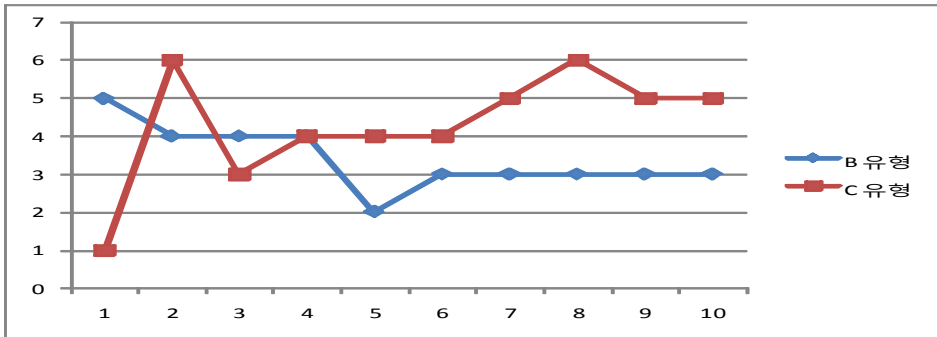


그림 2 유형 별 질문 회수의 변화

B 유형의 질문은 점점 참여자 수가 줄어 후반기에는 평균 3명이 제기한 반면 C 유형은 전반적으로 전반기에 증가하여 후반기에는 평균 5명이 제기한 것을 보여준다. 즉 비판적-창의적으로 사고하는 학생이 증가하였다는 말이 된다.

5. 마무리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도록 돕는 것은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나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일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것이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 제공하는 영어통사론 과목을 통하여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한 논평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 과목은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김영채 (1999)가 말하는 창의적 사고 능력, 그리고 김영정 (2002, 2005a,b)이 말하는 수렴적 사고 능력 혹은 과학적 창의성을 고양하기에 매우 적합할 수 있음은 보였다고 하겠다. 이 강좌를 발전시키는 데 대학당국에,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둘째로, 본 논문에서 사례연구를 한 강좌의 경우에 수강생이 적어서 이에 대한 조사는 파일럿 연구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확실한 것은 가설점검적인 C 질문 유형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은 창의적 사고력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C 유형의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의 기본인 문제에 대한 민감성, 재정의하는 태도와 능력, 그리고 평가하고 종합하는 사고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 논문은 아울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남겨 놓고 있다. 우선, 그러한 “창의적”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좀 더 적극적인 교수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로, 자료 분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정의적인 반응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창의적 사고는 창의적 태도를 지닌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정의적 반응이 학생들의 창의적 태도의 변화를 가늠하게 해 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 갑 (RE #4)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 by going over examples in our text book, I felt a[n] enjoyable shock Since the last class had my eyes open on how to look at English sentences, it was the greatest English class I have ever taken." 전술한 바와 같이, 이 학생은 후반으로 가면서 C 유형의 질문을 많이 제기하였다.

셋째로, 학생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의 질적인 변화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의 발전 과정을 좀 더 잘 보여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통사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언어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교수자 개인의 탐구와 학회 차원에서의 논의 및 의견 교환이 절실히 필요함을 제안하고 싶다. 그와 아울러,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영어)통사론 수업에서의 목표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싶다. 이는 어찌면 어떻게 하면 통사론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찌면 언어학 관련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더 중요한 훈련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데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들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열려 있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보다는 확립된 사실의 전달에 지나치게 치중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하여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충분히 발달시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나 경제 활동이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창의적이 될수록 경제적 안정을 얻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언어학의 발전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에게 올바른 탐구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생들이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자극하지 못하면, 언어학 내용을 아무리 잘 전달한다 하더라도 결국 절반만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언어학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수자 입장에서도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아마도 창의력을 자극하는 강의의 개발이 그러한 교수 능력을 개발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의 발현은 누구에게나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정. 2002.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인지과학* 13(4): 81-90.
 김영정. 2005a. 고등사고능력의 7범주. *자연과 문명의 조화* 53(6): 106-111.

- 김영정. 2005b. 예술적 창의성과 과학적 창의성. *자연과 문명의 조화* 53(8): 126-132.
- 김왕동과 성지은. 2009.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과제. *SPEPI Insight* 3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영채. 1999.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성의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 안성호. 2002. 영어교육과 통사론 과목의 내용 구성에 관하여. *교육논총* 18: 1-16.
- 양현권. 2003. 문법 이론과 외국어 교육. *어학연구* 39: 695-709.
- 양현권과 정영국 엮음. 2008. *교육 영문법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홍성욱. 2005. 과학과 예술: 그 수렴과 접점을 위한 시론. *과학기술학연구* 5(1): 1-32.
- Beach, R. and L. Bridwell. 1984. Learning through writing: a rationale for writing across curriculum. In *The development of oral and written language in social contexts*, ed. by A. Pellegrini and T. Yawkey, 183-198. Norwood, NJ: Abbey.
- Guilford, J. P. 1956. Structure of intellect. *Psychological Bulletin* 53: 267-293.
- Hettich, P. 1990. Journal writing: Old fare or nouvelle cuisine? *Teaching of Psychology* 17: 36-39.
- Kang, Young-Ah. 2008. Becoming a reflective action researcher.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Master of Arts in Teaching Degree, the School for International Training, Brattleboro, Vermont, USA.
-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cKeachie, Wilbert J. 1999. *Teaching tips: Strategies, research, and theory for college and university teachers*.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 [김종복, 안병규, 이병민, 이남근 공역. 2002.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대학 교수들을 위한 지침서*. 서울: 한국문화사.]
- Nickerson, D. N. 1987. Knowledge as design: Teaching thinking through content. In *Teaching thinking skills: Theory and practice*, ed. by J. B. Baron and R. J. Sternberg, 27-37. New York: W. H. Freeman and Co.
- Thornbury, Scott. 1999. *How to teach grammar?* Pearson Education Ltd. [이관규, 김라연, 윤정민, 서수현, 김지연 옮김. 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한국문화사.]
- Torrance, E. P. 1970. *Encouraging creativity in the classroom*. Dubuque, IA: William C. Brown.
- Torrance, E. P. 1995. *Why fly?* Norwood, NJ: Alex Publishing Co.
- Torrance, E. P. 1997. The nature of creativity as manifest in its testing. In *The nature of creativity*, ed. by R. J. Sternberg, 43-75.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안성호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shahn@hanyang.ac.kr

Received 2011. 5. 5

Accepted 2011. 5. 15